



니콜라스 스파크스 '워크 투 리멤버' <문학동네 펴>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뭘까. 오래전 그 문제에 대해 문우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들이 얻은 답은 '그 사람에 대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였다. 문학인들답게 다분히 감상적이긴 했으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는 무척 가슴에 와 닿는 말이었다.

그럼 사랑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사랑에 빠지면 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미상핵의 활동이 커진다고 한다. 이는 그곳에 격렬한 에너지와 흥분을 생성하는 도파민의 수용기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코넬대학의 신디아 하잔 교수에 의하면 도파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격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0개월이라고 한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따뜻하고



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사랑으로 변한다. 이야기가 그쯤에서 엔딩 되었다면 나또한 오래전 학창시절에 느꼈던 첫사랑의 감성을 되새길만한 것으로 끝나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첫사랑에는 턱이 있기 마련이다. 이 책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죽음이다. 저자는 턱을 넘는 방법으로 둘의 결혼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라는 답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발상 같기도 하지만 아직 미숙한 주인공들에게는 최선

사랑이 슬픈 건 기억 때문이다

감미로운 로맨스를 기대하며 골랐던 이 책은 미국의 보포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고등학교 졸업반들의 사랑이야기다. 처음 몇 장을 넘기는 순간 책에 관한 편식이 없는 나로서는 드문 경험을 했다. 책을 덮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미 질풍노도와 같은 청춘의 시기가 한참이나 지나버린 나에게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는 유치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책을 놓지 않았던 것은 조금만 더 읽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몰입되어 갔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순수의 세계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로맨스가 그렇듯 이 책 속의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무덤덤하다 못해 서로 외면하는 사이이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서

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회상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고등학교 시절 불과 몇 주간의 사랑을 40년간이나 간직하고 있다. 물론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반지를 빼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랑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한창 도파민이 분수처럼 분비되는 시기에 생과 사를 달리 했으니,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을 것이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으니 살아남은 주인공은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한 번쯤 기억 속으로 걸어가 볼 일이다.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생활에 지쳐 잃어버렸던 도파민을 불러들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뇌는 행복한 기억만으로도 도파민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나 정 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자

대인시장·예술의 거리 연계… 다양한 문화 가능성 봤다

교문화활성화거점 프로그램 운영… 무들마루사업단 신·호·윤 총감독 박상현 운영감독

지 계속된다. 예술공장, 갤러리 다다, 궁다방 등은 사업 종료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도 예술의 거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올해는 두 공간에서 함께 진행되면서 대인시장 작가들이 예술의 거리에 찾아오는 등 예술의 거리 문화 인프라가 향상됐다”며 “작가들과 함께 야외 경매 기간 연계행사로 거리미술제를 열면서 경매 참여도가 20~30% 이상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문화인프라 향상 예술가 참여 늘어

레지던시·게스트 하우스 꼭 추진

‘미리 크리스마스’ 올 마지막 행사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지만 변화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인예술야시장도 올해 새롭게 바뀌었다.

신 감독은 ““흥쾌한 광주”를 주제로 매달 행사를 한 꼭지로 묶어 진행하고, 판매대도 150팀까지 늘렸다”며 “그동안 참여가 배제됐던 타 지역, 타기관 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기관과 기관, 지역과 지역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두 곳은 지난 주말에도 중국에서 기자단이 다녀가는 등 전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에서 상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올해 가장 눈에 띄었던 사업중 하나는 예술의 거리 ‘궁다방’이다. 이 사업은 젊은 작가들을 불러들여 예술의 거리가 더욱 젊어질 수 있



올해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 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돼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 무들마루사업단 신·호·윤 총감독(사진 왼쪽)과 박상현 운영감독.

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궁다방은 작가들이 원한다면 작품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감독은 “중견 작가들에게는 예술의 거리가 익숙하지만 젊은 작가들에게는 큰 메리트를 주는 공간은 아니다”며 “올해 사업을 통해 젊은 작가들과 중견 작가, 예술의 거리 상인들을 연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무들마루 사업단은 예술공장, 갤러리 다다, 소풍유락, 낭만유랑단 등을 선보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신 감독은 “처음으로 두 공간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다가 보니 장점도 단점도 많았다. 하지만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며 “올해 추진하지 못한 레지던시와 게스트 하우스 등은 내년이라도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향상 예술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차 없는 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차 없는 날’을 만들고, 그 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인예술야시장과 예술의 거리 올 마지막 행사는 ‘미리 크리스마스’(12월13일)와 12월21~28일 ‘미리 뉴이어’(12월21일~28일)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 남자의 로맨티시즘’ 29일 피아니스트 조현영 독주회

피아니스트 조현영씨는 클래식 음악이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그녀가 꾸준한 연주 활동과 함께 서울 한국가곡 예술마을 나 음악트홀과 광주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테마가 있는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 조현영(사진) 독주회가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세 남자의 로맨티시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쇼팽과 브람스, 부조니의 음악을 들려준다. 쇼팽의 ‘아상곡 작품 9-1, 9-2’, ‘발라드 작품 23’, 판타지 ‘작품 49’와 브람스의 ‘피아노곡 작품 119’, 바흐의 원곡을 부조니가

편곡한 ‘샤콘느’가 레퍼토리다.

전남대 예술대 출신으로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거쳐 라이프제히 국립음대 박사 과정을 마친 그녀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광주과아노아카데미, 피아노도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 조선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2-511-1555.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自然愛 한글사랑’ 30일까지 김원의 서예전

‘물보라가 피어오른다. 붉은 해가 뜨겁게 떠오른다.’

광주 국윤미술관은 서예가 양진(洋田) 김원의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과 과장을 초대해 ‘자연의 자연애(自然愛) 한글 사랑’ 서예전시를 진행 중이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그는 이번 전시에서 해, 달, 산, 물, 바람 등 자연의 명칭을 소재로 한 한글 서예 작품으로 물질사회를 비판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지를 나타냈다.

무수히 반복되는 한글의 먹색 농담과 함께 그 뜻에 어울리는 색과 이미지 담은 작품들에서는 확마다 힘과 자유분방함이 느껴진다.

장전 하남호 선생을 하사한 작가는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논어를 번역한 ‘공자도 읽지 못한 논어’ 등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문의 062-232-7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겨울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능동동 1(연일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서귀포점)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주요 항공사: KOREAL,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해운

남이섬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기차여행 (12월24일)

시 간	일 정
00:05	광주역출발/가평역 도착
07:00	남이섬/김유정문학촌관광
11:40	춘천소양대 관광
13:10	춘천먹거리 자유중식
21:53	춘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79,000원 소아 59,000원

동해일출

동해 추암 촛대바위 일출 기차여행 (12월31일)

시 간	일 정
22:00	광주역출발/동해역 도착
06:40	추암 촛대바위 새벽 일출
09:00	천곡동굴 관광/속초 관광
12:10	속초어시장 자유중식
22:30	동해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99,000원 소아 70,000원

태백산

태백산 눈꽃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 간	일 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00	태백산 등반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정동진

정동진 일출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 간	일 정
21:45	광주역출발/태백역 도착
06:30	정동진 일출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하이원스키장

하이원스키장 시즌버스 매일 왕복

시 간	일 정
03:00	염주체육관 주차장
03:05	신세계 백화점 육교 밑
03:10	문화예술회관 육교 밑
08:00	하이원스키장 도착
16:30	하이원스키장 출발
21:30	광주도착

1일 왕복요금 50,000원

리프트카, 장비렌탈(주중60%, 주말 50%) 할인 적용